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2억원' 돌파

지난 8월 29일 정식 개장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석연휴 동안 일일 매출 1천만 원을 넘기는 등 대박 행진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강진농협파머스 내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삽인삽(매장 안 매장) 형태의 매장이다.

9월 16일 기준 260농가의 240개 품목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임시개장 후 일일매출이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 평균 3백만원 선을 유지했던 매출이 이번 추석을 맞아 개장 이후 최고치(1일 1천8백만원)를 기록하며, 연휴 내내 활기 넘 모습을 보였다.

지난 60여 일 간 이뤄진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출하능가 65%가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고, 33%가 100만 원 이상, 2%가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농가 소득이 크지 않지만 매장이 개장 초기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반응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출하 농가 소득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군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소비자층이 많이 찾는 신선채소류 공급 확대를 위해 농가를 조직화해 연중 기획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정식 개장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석연휴 동안 일일 매출 1천만 원을 넘기는 등 대박 행진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지역서 생산된 농산물 한자리서 구입 가능 신선하고 품질 좋아 귀성객들에게 큰 호응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아직 초기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한다. 로컬푸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출하능가 소득도 점차 높아질 것이며, 향후 로컬푸드가 중농업인의 소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임시개장 이후 현재까지 매출 약 2억2천여만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전운재 기자 wjzun@

은은한 녹갈빛 해남청자의 비밀 밝힌다

해남·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일 학술대회 개최

소박하고 은은한 녹갈빛의 고려청자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남청자'의 비밀을 밝히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연구소 내 사회교육관(전남 목포)에서 '해남청자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해남청자는 소박한 녹갈빛을 띠는 고려 시대의 대중적인 청자로, 그동안 비색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40여년에 걸친 수증발굴 조사 결과 소박하고 은은한 빛깔의 해남청자는 당시 고려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해서 10세기 무렵부터 13세기까지 수많은 가마의 생산품들이 서해와 남해로 바닷길이 열린 해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비지로 유통됐다.

특히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특별전을 통해 난파선에서 출수된 해남청자 2천500여점을 선보이면서 상감청자와는 다른 독자적 영역으로 해남청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에 있었던 해남청자에 대한 수증발굴조사와 해남청자요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해남청자요지에 대한 사적 지정과 전남도 지역 고려청자요지(해남·강진·부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발표는 총 5개 주제로 △해남 청자의 전개과정과 도자사적 위상(한성



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해남 신덕리 청자의 변천과 성격(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해남 진산리 청자의 변천과 성격(변남주, 국민대학교) △바닷길 해남 청자의 성격과 전시 활용(박예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남 청자 요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략과 과제(문이화, 원광대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해남청자를 살펴볼게 된다.

발표후에는 군민을 비롯한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고려 시대 해남청자의 도자·문화사적 가치와 연구 방향, 청자요지 발굴조사의 필요성, 유물의 활용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하는 종합토론을 펼친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완도, 5일시장 공영주차장 개방

총 26억 투입...108면 주차 시설 마련

완도군은 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한 완도 5일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 5일시장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주차장은 2층, 3단 구조로 일반 90면, 장애인 5면, 경차 13면, 총 108면의 규모로 조성됐다. 더불어 1층에는 편의 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며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완도 5일 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곳

은 완도읍사무소와 완도 5일 시장 사이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장이 설 때마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완도 5일 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장날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평소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가 근절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5일 시장 및 완도읍사무소 이용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로변 불법 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규진 기자 jin2001@



완도군은 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한 완도 5일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군 제공

신안, 태풍 피해농가 긴급 일손 돕기 지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배락과 피해를 입은 압해읍 현장을 방문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긴급 일손 돕기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압해읍 북룡리 신안배 수출재단지 일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태풍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 중 긴급 복구가 필요한 9농가(10ha)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했다.

지원인력은 신안군 공무원 100명, 인근 8332군부대원 20명, 전라남도 소방대 80명 등 200여명으로 압해읍 북룡리 박곡상씨 외 8농가를 찾아가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고, 낙과된 배를 수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태풍은 역대 5번째 규모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농작물 도복과 과수 낙과 피해로 수확을 앞둔 농업인의 마음속에 애태웠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